

신림선 경전철 (가칭) 박종철역 신설 촉구 건의안

(유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81
----------	-----

발의년월일 : 2019.03.19.

발 의 자 : 유정희, 신정호, 김재형, 이은주, 권수정, 문병훈, 오한아, 홍성룡, 이준형, 최기찬, 한기영, 김태호, 우형찬, 전석기, 송도호, 성중기, 조상호, 김희걸, 전병주, 양민규, 추승우, 김춘례, 노승재, 이성배, 이세열, 김창원, 최영주, 이현찬, 이정인, 김소영, 노식래, 송정빈, 김화숙, 김평남, 김용연, 김인제, 봉양순, 송재혁, 김생환, 박기열, 이광성, 김혜련, 이영실, 이상훈, 장인홍, 김달호, 장상기, 이동현, 김경우, 권영희, 송아량, 김호진, 강동길, 정재용, 이경선, 김 경, 권순선, 김기덕, 김제리, 송명화, 김정환, 김광수, 김태수, 최정순, 김경영, 이병도, 채유미, 유 용, 황인구, 김동식, 최웅식, 박기재, 김인호, 문영민, 경만선, 임종국, 김용석, 성흠제, 문장길, 황규복, 이태성, 이호대, 박순규, 오현정, 이광호, 안광석, 최 선, 서윤기, 김종무, 김호평, 정진술, 임만균, 박상구, 고병국 의원 (94명)

1. 주 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관악구 내 고시촌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1년 개통예정인 신림선 경전철 노선 중 삼성교와 공원 공동주차장 사이에 “(가칭)박종철역” 을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함

2. 제안 이유

- 2017년 사법고시 폐지로 인해 관악구 대학동 고시촌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되어 지역경제가 위기에 봉착했음
- 2021년 개통예정인 신림선 경전철 노선 중 미림여고부터 종점인 관악산역까지의 거리는 1120m로, 주변지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고시촌 학생들의 이용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신림선 경전철 노선 중 “(가칭)박종철역” 을 신설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3. 이 송 처

-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신림선 경전철 (가칭) 박종철역 신설 촉구 건의안

서울시는 지난 2019년 2월 21일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 실현 및 철도교통 소외지역 연결을 위한 강북횡단선 등 균형발전을 견인할 10개 노선을 추진하는 ‘제 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10년간 추진되는 도시철도 총 사업비는 10개 노선, 총 7조 2302억 원이며, 국비 2조 3900억 원, 시비 3조 9436억 원, 민간사업비 8966억 원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2022년 개통예정인 신림선 경전철은 서울대학교 정문에서부터 대학동 고시촌 일대를 거쳐 신림역(2호선 환승), 보라매역(7호선 환승), 대방역(1호선 환승)을 지나 여의도(9호선 셋강역)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7.8km의 지하경전철이다. 서울특별시 내의 대표적인 교통 사각 지대인 신림동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의 대형 수요처인 서울대학교와 여의도를 연결하며 보라매공원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다방면의 효과가 예상된다.

신림선 경전철은 현재 11개의 역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지만, (가칭)미림역 고역 에서부터 종점역인 (가칭)서울대역까지의 거리는 1120m이다. 통상의 경전철 역간거리가 700~800m 임을 고려했을 때 역사간 간격이 비합리적으로 길게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구간은 버스장류장이 3개가 있을 정도로 교통수요가 높기에 신림선 경전철의 가장 큰 이용자인 대학동 수험생과 고시촌 주민들의 경우는 지하철 이용에 큰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관악구 대학동 고시촌은 지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과 2017년 사법시험 폐지로 고시생이 급격히 감소해 지역 공동화 현상

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시원의 불황 여파는 인근 식당, 서점, 독서실, 문화시설 등으로 파급되고 있어 지역경제 전체가 위기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림선 경전철 (가칭) 박종철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관악구 대학동은 지역 공동체인 서울대학교의 3만 재학생과 교직원의 주요 생활권이며 5만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청년활력공간이 건설 계획 중에 있다. 특히 관악 민주화의 성지이자 민주 올레길의 정점인 고 박종철 역사 기념관역시 설립이 예정되어 있어 지역 이용을 위한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질 예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칭) 박종철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관악구청은 신림선 경전철 노선 확정과정에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에 정거장 신설을 요구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으며 관악구 의회 역시 (가칭) 박종철역 신설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서울시와 청와대에게 결의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관악구 내 고시촌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신림선 경전철 노선 내 “(가칭) 박종철역” 의 신설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